

매드 포 베이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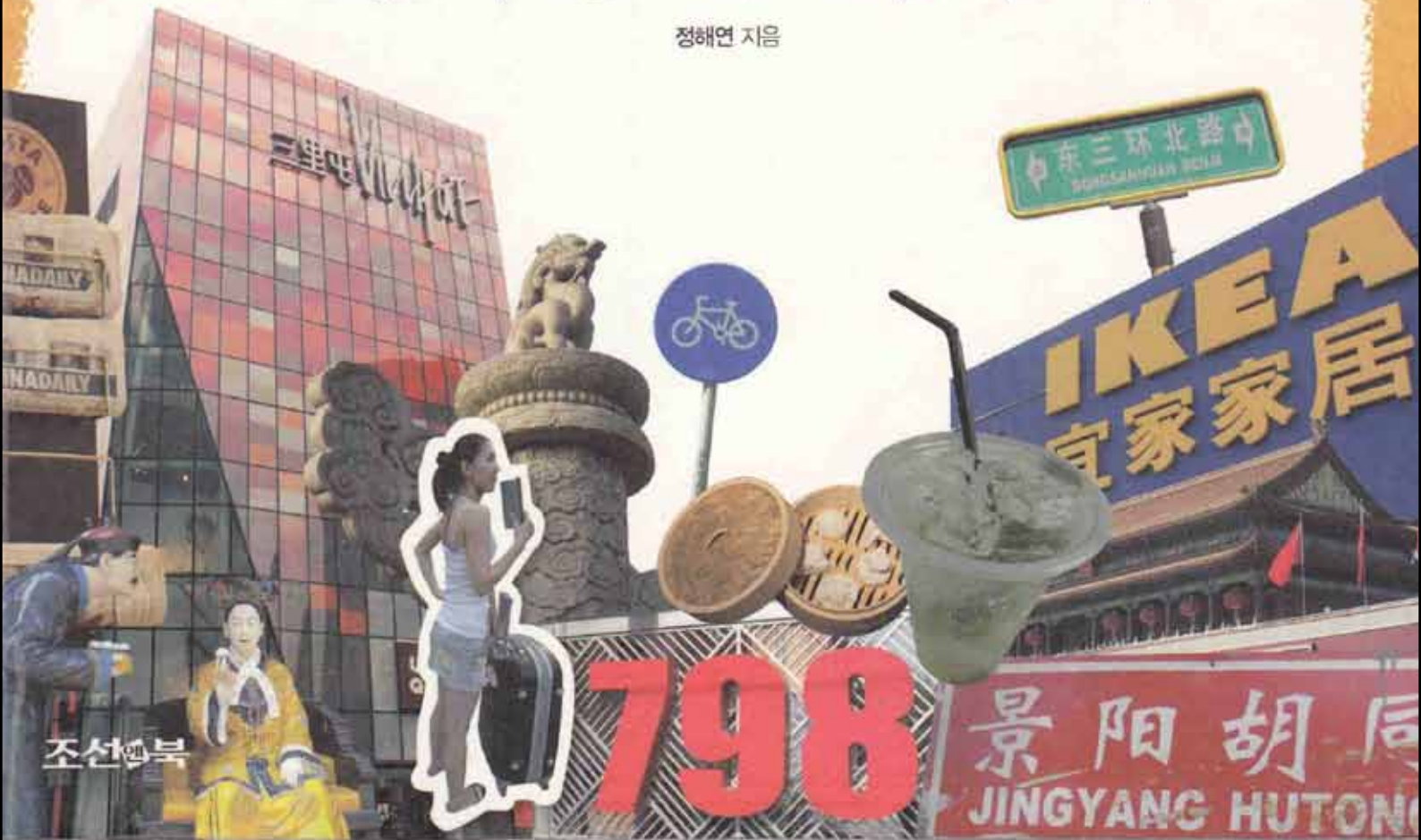


Kiki가 찾아낸 베이징의 109가지 숨겨진 이야기

MAD FOR BEIJING

베이징에 취하다

정해연 지음



조선엔북

798

景阳胡同
JINGYANG HUTONG

▶ 코스라이바 过客, Pass by Bar

난립구샹의 터줏대감 카페 겸 레스토랑. 1999년 센스 있는 주인이 낡은 사합
문을 개조해 여행광들의 아지트로 재탄생시켰어요. 티베
트 문화의 분위기를 한쪽엔 전 세계 『론리 플래닛』이 가득함
으로써 돌아오지당 피자가 특히 유명해요.

가는방법 난립구샹 108호 MAP 05

베이징포스트카드 풍경



★ 베이징포스트카드 北京卡片, Beijing Postcards

귀여운 일러스트와 1900년대 베이징 사진이 담긴 그림엽서를 파는 곳이에요.
엽서와 노트 등 아이템의 느낌이 무척 좋아 주인장을 쳐다봤더니 외국인 청년
이네요. 중국말을 모국어처럼 하는 그는 중국에 정착한 지 10년이나 됐대요.
엽서를 사면 노란 봉투에 담아 가게 로고가 그려진 도장
까지 팡팡 찍어줘요. 센스는 난립구샹 최고!

가는방법 난립구샹 85-1호 MAP 05